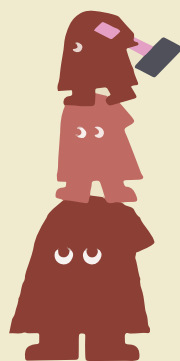


2022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지원사업

철박물관 기획전

두드리다

지금,
당신이
두드리고
있는?



2022 철박물관 기획전
두드리다

지금, 당신이 두드리는 것은?

목차

발간하며	5
1부_ 2021 철박물관 기획전 <두드리다>	6
2부_ 2022 기획전 연계 교육프로그램	32
진행 사진	36
작품 소개	54
3부_ 참여 후기	70

발간하며

철박물관 기획전<두드리다>는 2021년 끝자락에 열렸습니다.
<두드리다>는 전시 제목에서 나타나듯 철을 다루는 방법 '단조'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도구, 영상, 체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우리가 두드려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전시기간으로 많은 관람객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2022년, 전시 기간을 연장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보다 가깝게 관람객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모아 이렇게 담아냅니다.

기획전<두드리다>의 교육프로그램 '지금, 당신이 두드리는 것은?'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집게로 잡고, 모루에 얹혀 망치로 두드렸던 대장간에서 대장장이의 모습을 상상하고, 두드리는 체험을 통해 얻은 통쾌함,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드리며 느꼈던 다양한 생각 까지, 그 의미를 전시를 통해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질문하고, 새롭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두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2년 12월
철박물관 일동



2022 철박물관 기획전

두드리다

세상을 바꾼 철,
두드리면 변하고
두드리는 나도 신난다!

2021. 12. 14. (화)~12. 25. (토)

연장

2022. 03. 02. (수)~12. 24. (토)

2021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철박물관 기획전

두드리다

세상을 바꾼 철,
두드리면 변하고
두드리면 나도 신난다!

주관·주최 : 철박물관
기획 : 철박물관, 유지영교육연구소
후원 : 충청북도, 음성군, (재)세연문화재단
협력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세
한글박물관
HANGUL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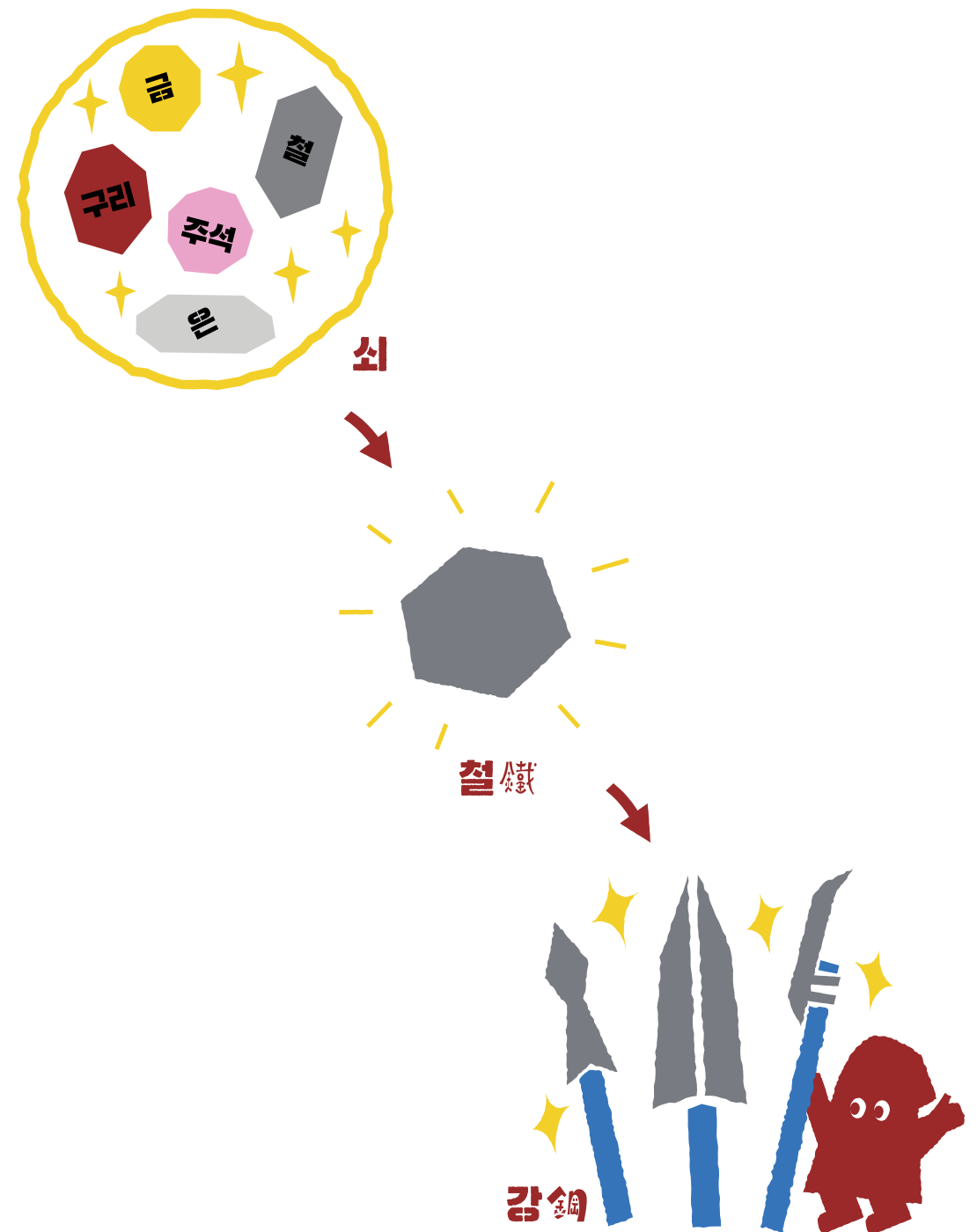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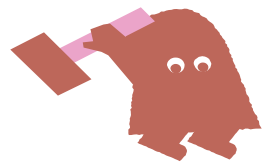
두드리다

때로는 힘껏, 때로는 힘없이 **살짝, 살살**
우리는 필요에 따라 힘을 조정해 도구와 재료를 다룹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드림으로 변하는 철, 철을 두드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철과
두드림으로 만들어진 철을 만나봅니다.

철광석을 1,5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달구면 돌 속에 있던 철이 분리되어 흘러나옵니다.
이 쇳물은 실온에서는 덩어리가 유지되고, 이 덩어리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원하는 도구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수없이 반복되는데, 따라서 엄청난 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드려서 변화하는 철을 직접 발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 세상을 바꾼 철 —

우리는 현재, 철로 만들어진 다양한 도구와 물건을 사용하고 있어요.
철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는 쇳물을 틀에 부어서 만드는 '주조', 두드려서 만드는 '단조'가 있어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튼튼하게
더 강하게

인류 문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철.
철이 가져온 세상의 변화를 찾아보세요.



나나리면 피하닥!



철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살펴볼까요?

철을 잡는 집게

철을 올려놓는 모루

철을 두드리는 망치

자! 이제 우리가 두드려보는 시간,
망치로 철판을 두드려보세요.
어떤 망치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두드렸나요?

철을 숯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철의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탄소(C) 성분이 조절됩니다.
더 날카롭게, 더 단단하게
강한 충격을 견뎌내는 도구나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태어난 호미, 낫과 같은 농기구,
칼이나 창 등의 무기를 생각해보면 인류의 변화가 그려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두드려서 만든 철 물건,
견고한 철이 사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곳을 생각해봐요.





집게와 망치는 철을 잡고 두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장간과 공장,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집게와 망치 82점이 전시되었다.



철판을 두드려 조형미를 보여주는 예술 작품과 함께 조성한 공간이다.
 관람객이 직접 안전 장치를 한 후 망치로 철판을 두드려,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제
합금
250*122

배서영
2016



모루는 주로 금속을 망치로 두들겨 단조 할 때 밑에 받치는 기구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철박물관에서는 약 108점의 모루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 11점을 전시했다.

「두드리」는 나도 신난다」

더 두드리볼까요?
두드릴 때 기분은 어땠나요?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 너무 힘껏 두드리 힘들지는 않았나요?

더 두드리보고 싶은 것,
두드리서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두드릴 때의 느낌을 기억하세요.
철이 단단해지듯이
나도, 우리도 더 단단해지고 있는 순간이니까요!





사진제공: 이병훈 작가





실내 전시에서 확장해 야외에 관람객이 두드리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철판으로 만들어진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 작업 할 수 있다.
 관람객은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망치로 나무에 못을 두드리는 체험과
 철판의 단단함으로 고정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2부

2022 기획전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금, 당신이 두드리는 것은?

일시

2022. 06.~2022. 11.

참여자

가족

63가족(252명)

학급

괴산 제일어린이집

남신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수봉초등학교

양성중학교

음성중학교

지역아동센터

갈매기의 꿈

대소지역아동센터



두드리다 '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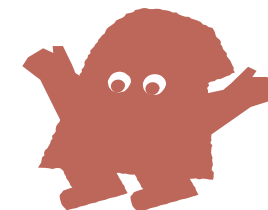
철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는 쇳물을 틀에 부어서 만드는 '주조'와 두드리어서 만드는 '단조'가 있어요.

영상을 통해 철을 통해 변화한 세상을 알아봅니다.



철이 바꾼 세상

더 많이,
더 높이!
철이 가져온 세상의 변화!



철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

망치, 집게, 모루



두드리면 변하는 철



캠핑장 문

못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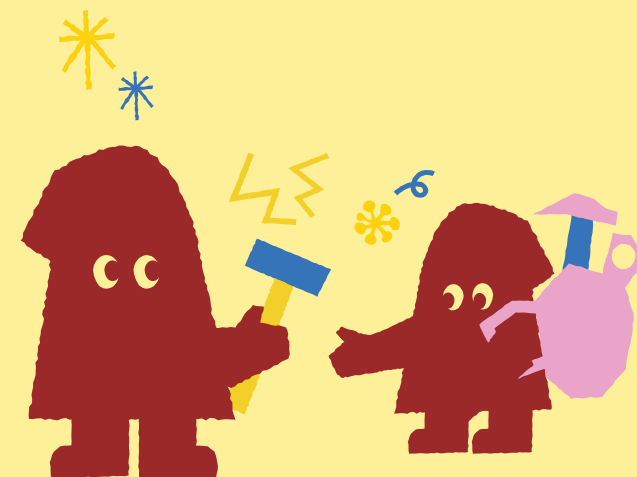
나

지금,
두드려야 할 것은 !?

뚝

게임 놀이

친구의
마음



작품제작을 위한 재료 탐색 시간!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위해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집게로 못을 잡고, 망치로 두드려서 작품을 만들어볼까?

나무, 톱, 망치, 못, 집게…….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못을 박으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까?



망치로 두드려 못 박아 보기!

처음으로 해보는
망치질!



쑹쑹~~
잘 박힌다!!

천천히
툑툑툑!



두드려서 만들기!



뭔가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

혼자서는 힘들어!
가족이 힘을 합쳐서!

두드려서 만든 작품에 색칠하기!



두드려 완성한
우리의 작품!





이민석(8세)

철박물관에서 인상깊었던 전기로를 보고
철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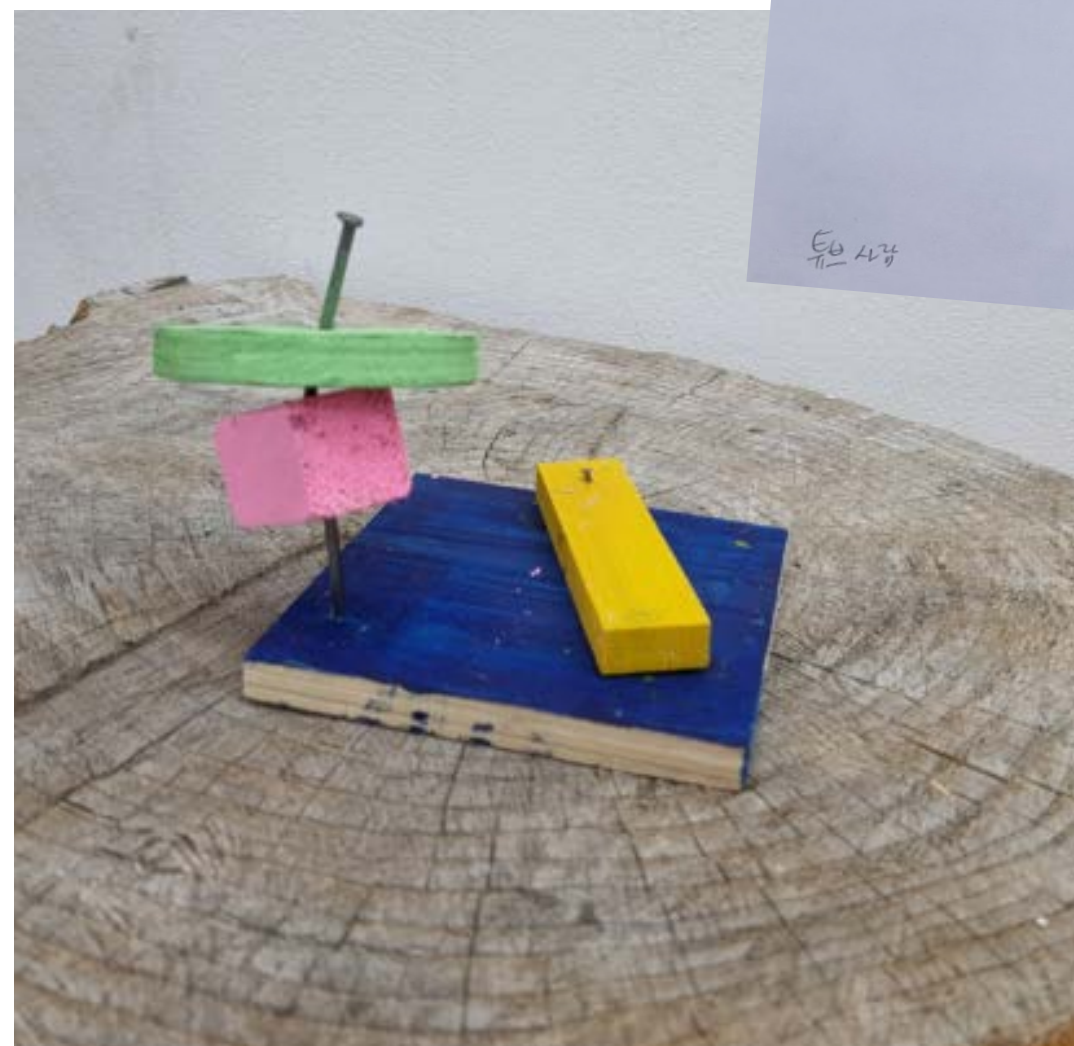
장서아(8세)

소중한 우리가족을
두드려 만들었어요!



임승주(9세)

이건 사자와 고양이가 합쳐진
잠냥이에요!



김준수(9세)

스케치했던 그림처럼 두드려 만드는게
어려웠지만 이건 튜브사람이에요!



남신초등학교 2학년



음성중학교 3학년



원당초등학교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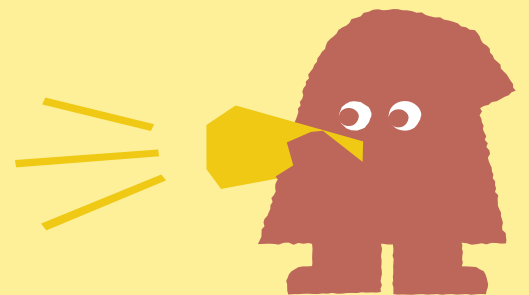
수봉초등학교 4학년






지금,

당신이 두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3부

참여후기



“지금 당신이 두드리는 것은?” 이란
활동에서 내가 구상한 것을
내가 직접 여러 재료로 만들어서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9월 1일
충청북도 거주 학급 단체 참여자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즐거웠습니다.
여름방학 같았어요.

7월 2일
경기도 거주 가족 참여자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0월 1일
경기도 거주 가족 참여자

우리 아이들이 즐거움 속에
큰 배움을 갖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10월 12일
감곡면 거주 학급 단체 참여자

다시 또 오고 싶어요.

11월 5일
경기도 거주 지역아동센터 참여자

참가자 설문 자유의견에서 받았습니다.

두드리는 것의
새로운 의미를 알았어요!

11월 19일
음성군 거주 지역아동센터 참여자

아이 및 성인에게 철에 대한 이해를
프로그램을 통해 접할 수 있고
실내, 실외를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지루할 틈이 없이 잘 즐기고 갑니다!

10월 1일
충청북도 거주 가족 참여자

톱으로 자르고 못을 박는 체험이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7월 28일
음성군 거주 가족 참여자

사랑해요. ♥

11월 15일
음성군 거주 학급 단체 참여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11월 19일
음성군 거주 지역아동센터 참여자

참가자 설문 자유의견에서 발췌했습니다.



QR코드를 찍어 과정을 영상으로 보실수 있어요.

총 괄 장인경
주 관 철박물관
기 획 철박물관, 뮤지엄교육연구소
후 원 충청북도, 음성군, (재)세연문화재단
전 시 협 력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철 박 물 관
콘텐츠연구팀 권남희, 권선경
콘텐츠운영팀 이미숙, 장옥희
경 영 지 원 팀 김도희, 전효재

발 행 일 2022년 12월 30일
발 행 처 (재)세연문화재단
주 소 (27611)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360 철박물관
홈 페 이 지 www.ironmuseum.or.kr

I S B N 978-89-960406-9-9 (95060)

2022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지원사업

철박물관 기획전 <두드리다>

지금, 당신이 두드리는 것은?



© 철박물관

이 책은 철박물관 기획전 <두드리다> 도록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